

# 서울시, 3100억 투입해 5개 권역 시립도서관 세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도서관  
2025년까지 권역별로 건립  
장서수 1인당 2.4권까지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2025년까지 서울 강서·관악·도봉·송파·서대문구에 중대형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각 도서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전문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비용을 포함해 총 31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4개 권역별로 연면적 9000㎡, 지상 4층 규모의 중대형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관악, 동북권은 도봉, 동남권은 송파, 서북권에서는 서대문구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각 도서관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체코 '자연과학도서관', 뉴욕 '과학·산업·비즈니스 도서관' 같은 특화 전문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서남권은 타 권역보다 지리적 범위가 넓어 2개 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남권 강서구 내발산동에는 '과학·환경 도서관'이 조성된다. 서울식물원과 다수의 근린·생태공원이 입지한 주

변 특성을 살려 체험과 교육 중심의 도서관을 만든다. 해당 부지는 SH공사 소유의 내대지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관악구 신림동 금천경찰서 부지에는 '창업·비즈니스 도서관'을 세운다. 취·

창업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무료상담, 직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북권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부지(북가좌동 479)에는 '디지털·미디어 도서관'을 만든다.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전자자료를 주요 장서로 하고 영상과 미디어 창작공간도 마련한다.

대학이 밀집한 동북권에는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 일대에 평생학습 중심의 '인문·사회 과학 도서관'을 짓는다.

잠실종합운동장 등 복합문화예술시설이 입지한 동남권에는 '공연·예술 도서관'이 들어선다. 시민 예술가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한류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파구 위례매지지구 내(장지동 893)에 건립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구립도서관 66곳, 작은도서관 195곳을 추가 건립한다. 약 12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 도서관은 1178곳에서 1444곳으로 늘어나고 공공도서관 1개관당 서비스 인구는 5만6000명에서 4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시립·구립·교육청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도 시작한다. 또한 25개 자치구별로 1개 도서관을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장서 확충에도 나서 작년 기준 시민 1인당 1.43권인 장서 수를 2025년 이후 선진국 수준인 1인당 2.4권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겐 그림책, 가방, 손수건 등이 든 '북스타트 꾸러미'를 선물한다.

박원순 시장은 "새롭게 건립될 권역별 시립도서관은 정보·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의 핵심 도서관 인프라이다"며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완성해 서울 전역 어디서나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책과 토론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문화 활동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중고차 3대중 2대, 실제 차량상태 달라

경기도, 중고차 구매 시 주의 당부  
피해구제 신청자 52.9%만 합의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의 5명 중 4명은 판매자가 제시한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서로 달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

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 협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구매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숲 보행교 기본구상안

/서울시

## 서울숲~응봉역 잇는 공중다리 건립 '시동'

서울시, 공모 관리 용역 공고

서울시가 간선도로와 중랑천으로 단절된 서울숲과 지하철거의선 응봉역 사이를 연결하는 공중 보행교를 놓는다.

서울시는 서울숲 보행교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관리 용역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중보행교는 서울숲 레미콘 공장 부지와 응봉역을 연결하는 길이 350m, 폭 10m의 보행·자전거 겸용 도로다.

보행교 건립은 지난해 3월 시가 발표한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의 핵심 기반

사업 중 하나다. 시는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해 세계적인 생태문화공원으로 재생한다는 목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보행교 디자인 특화방안 등 보행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 9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를 거쳐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휴양지 불법야영장 등 위법행위 68건 적발

24개반 94명 투입 200개소 수사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무허가로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들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

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 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 서울시, 포트홀 4년간 47% 감소

도로포장상태지수 올해 6.64로 향상

서울시는 최근 4년간 포트홀(도로 파임)이 47%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수량 1mm당 포트홀 발생은 2015년 46.6건에서 2016년 37.2건, 2017년 27.5건, 2018년 24.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도로 파임 발생 건수는 2015년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도로포장상태지수(SPI)는 2015년 6.40에서 2016년 6.21, 2017년 6.19로 떨어졌다가 올해 6.64로 향상됐다. 통상 포트홀은 강우량과 강설량이 많아지면

증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강수량이 32% 증가했음에도 포트홀 발생이 4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2015년부터 1등급골재(구조적 지지력 향상), 박리방지제(빗물 저항력 향상),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 등 고품질 시공관리로 안전성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포장설계법은 대도시 서울의 교통량, 기후조건, 도로조건 등 복합적인 도로 특성에 따라 도로 등급별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관리법이다. /김현정 기자